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체벌근절 Q&A**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



**세이브더칠드런**

이 자료집에는

'Prohibiting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09)'  
을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www.endcorporalpunishment.org](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 [info@endcorporalpunishment.org](mailto:info@endcorporalpunishment.org)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에 대한 폭력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체벌근절 캠페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를 진행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완전히 없애려면 아동의 복지나 훈육과 관계 있는 법 중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을 없애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www.sc.or.kr](http://www.sc.or.kr)



Q

왜 체벌을 금지하고 없애야 하나요?

A

다른 경우의 폭력을 먼저 생각해봅시다.

성인에 대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 지 오래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과 장애인처럼 폭력에 취약한 성인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과 관행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 단계에 있는 취약한 아동은 대부분 이런 과정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아동 역시 인권을 가진 주체입니다. 아동이 폭력으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어른보다 적게 받는 상황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며, 아동 체벌을 허용했던 법률 또한 반드시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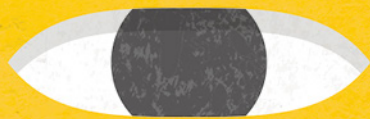
Q

체벌이 정말 아이를 다치게 하나요?

A

물론입니다. 체벌이 신체적,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벌은 아이가 체벌을 받는 그 순간뿐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폭력과 모욕적인 대우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의 정신 발달에 손상을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등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아이를 다치게 합니다.

체벌을 할 때 그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때리는 사람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체벌도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세기와 횟수로 치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Q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사랑의 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안전한 체벌은 괜찮지 않나요?

A

안전한 체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사랑의 매'는 사랑하면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아동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과 '사랑의 매'는 모두 그 의도나 정도에 상관없이 아이의 존엄성과 신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부상당하거나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을 보면, 많은 경우 그 시작은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체벌을 할수록 어른들은 때리는 행위에 둔감해지고, 처음엔 아이를 가볍게 때리는 것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점 가혹하게 때리는 것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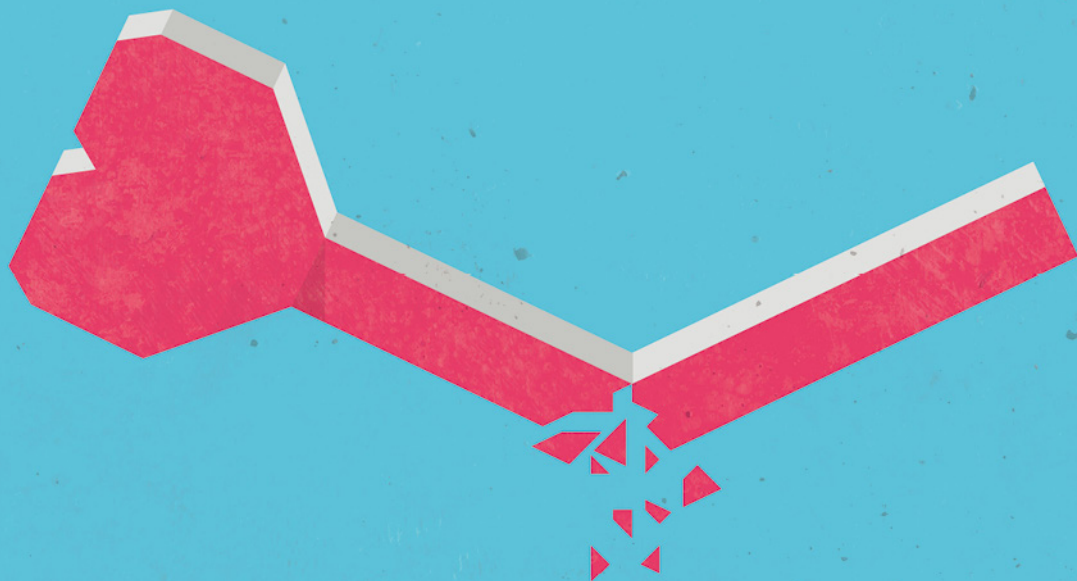
저도 어릴 때 맞고 자랐지만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잖아요. 부모님이 저를 때려서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A

부모님께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랐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체벌을 견디며 '잘 자라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겪은 체벌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까지 '괜찮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어른들은 보통 자신이 어릴 적에 맞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랐다고 이야기하며 체벌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가 당시 널리 퍼져있는 문화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사회가 변하면 그 규범 또한 변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금지된 것처럼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역시 이제 끝내야 합니다.





Q

체벌을 꼭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요? 부모들이 체벌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A

‘체벌은 위법’이라는 규정 자체가 강력한 사회 교육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법과 교육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체벌 금지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체벌을 없애려면 ‘교육’과 ‘법에 의한 금지’ 모두 필요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법이 허용하고 있을 때 교육만으로 그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과 교육이 같은 메시지를 주어야만 합니다. 법에 따른 체벌 금지는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할 때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찾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전문가와 정책입안자, 대중매체 역시 체벌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n illustration of a raised fist, rendered in a stylized, geometric manner. The fist is colored in a light red or pink hue, contrasting with the dark blue background. The hand is positioned with the thumb tucked in and the index, middle, and ring fingers extended upwards. The wrist and forearm are also visible, continuing the upward motion. The overall style is minimalist and impactful, symbolizing protest or solidarity.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에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강도를 불문하고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 모든 처벌과,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처벌'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Q

체벌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있나요? 부모라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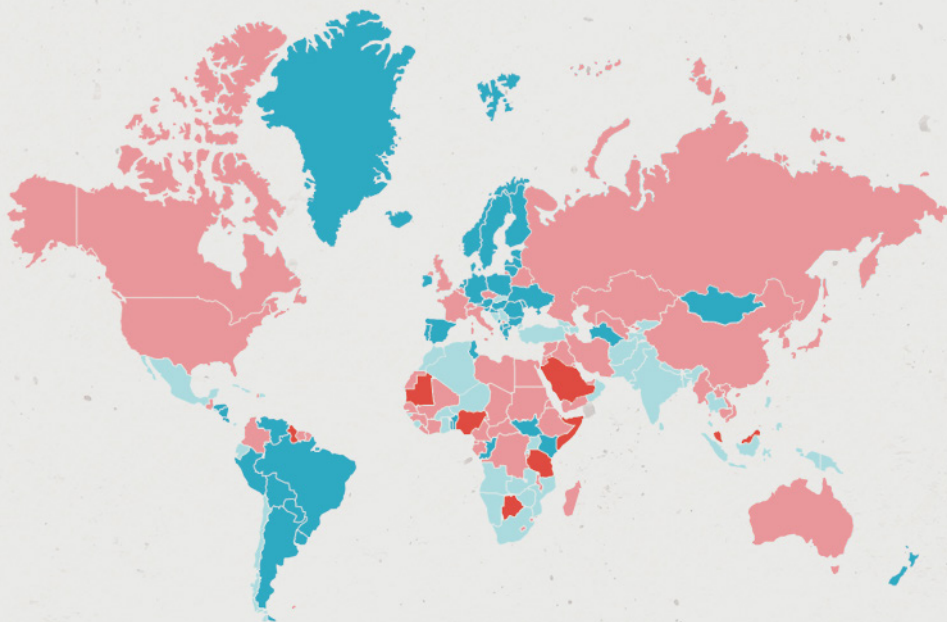
A

아이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제3조). 우리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잔혹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벌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고 신체의 소중함을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체벌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며, ‘신체적 처벌은 물론 그 외 모욕적인 형태의 모든 처벌은 폭력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2018년 현재 모든 상황에서 신체적, 모욕적 처벌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53개국에 이릅니다. 명확한 아동권리 원칙과 신체적, 모욕적 처벌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러 연구에 힘입어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체벌 전면 금지 국가

■ 체벌 전면 금지 예정 국가

■ 체벌 일부 허용 국가

■ 체벌 허용 국가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보고서

스웨덴

부모후견인법 제6조

아동은 고유한 성격과 개성을 존중 받고, 대우받아야 하며, 신체적 처벌이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독일

민법 제1631조

아동은 비폭력적으로 양육될 권리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처벌과 기타 모욕적인 처벌 방식을 금한다.

네덜란드

민법 제1조 247항

육아와 양육에 있어 부모는 신체적 정신적 처벌이나 기타 모욕적인 처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몽골

아동보호법 제2조 6항

부모나 보호자, 아동을 보호·감독·지도 할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아동을 양육하거나 훈육함에 있어 모든 형태의 신체적·모욕적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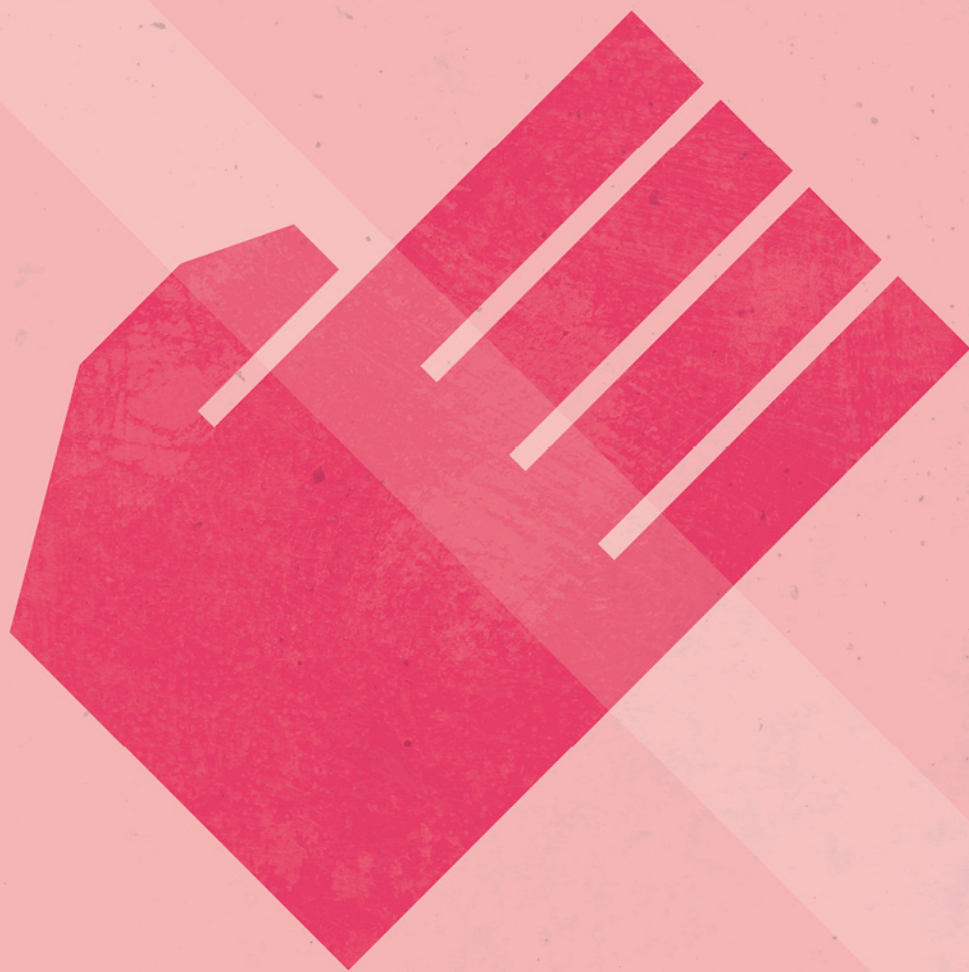
Q

체벌은 우리의 전통 양육방식입니다.  
이를 금지하라는 것은 서양 중심적인 사고방식 아닌가요?

A

체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체벌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인종, 문화, 전통과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가 체벌을 지지하고 의무적으로 체벌을 하게 한다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종교나 신념을 추구할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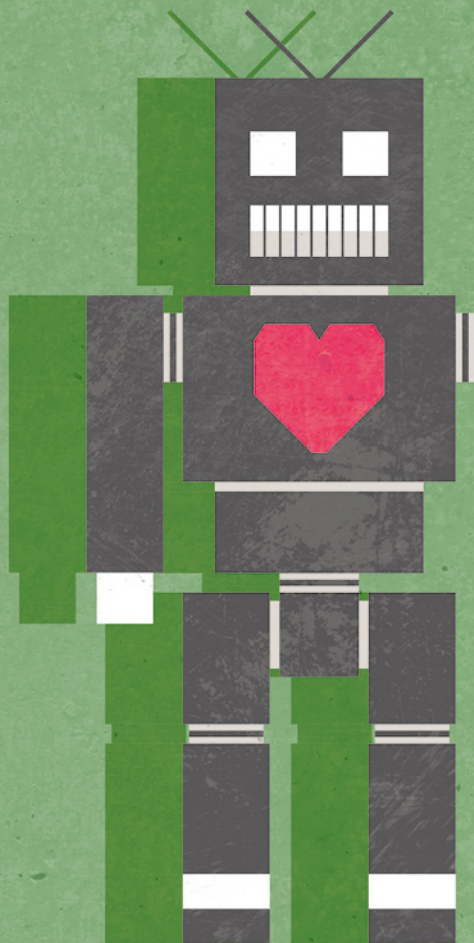
체벌을 범죄로 여긴다면 수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체포되고  
아이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요?

A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곧 부모나 교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아닙니다. 어른과 아이가 비폭력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큼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데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것이 체벌 금지 법제화의 핵심입니다.





Q

체벌을 전적으로 금지한다면 아이들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나요?

A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특히 아이가 영유아일 때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행동이나 간섭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과, 체벌을 통해 아이에게 고통이나 굴욕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어른으로서 우리는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행동과 폭력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법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힘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체벌을 없애려면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A

한국에서도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조항이 생기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5조 2항 신설, 2015.3.27)

그러나 『민법』 제915조(징계권)은 친권자가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하여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은 학생에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서든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처벌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체벌 금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Q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체벌금지에 반대합니다.  
이들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A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수의 의견'이 꼭 정답이 아닌 경우를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인종 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체벌을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합니다.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이 사라지는 날까지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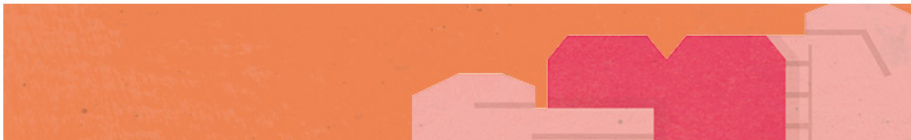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체벌근절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정, 학교, 시설 등 어떤 곳에서든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 폭력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벌근절 캠페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를 진행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체벌근절 캠페인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법 개정: 체벌 금지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 개정 촉구
- 교육: 비폭력적인 훈육 방식 확산을 위한 교육
- 인식개선: 아동에 대한 체벌과 폭력을 시민 모두가 더 이상 용인하지 않도록 설득



**발행일** 2018년 6월 26일

**발행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연락처** tel 02. 6900. 4400 fax 02. 6900. 4499

**홈페이지** <http://www.sc.or.kr/>

**디자인 · 제작** (주) OCT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체벌에 반대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